

홍순관 예비후보 경영계획-1

01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및 철학 (방송의 독립성, 보도의 공정성 등)

공영방송을 지키려면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편향되지 않는 프로그램과 내부 구성원들의 긴밀한 화합이 필요합니다.

1. MBC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수지 개선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 KOBACO 등 우리에게 역차별적인 비대칭규제를 반드시 철폐하겠습니다.
 - 콘텐츠와 비콘텐츠(일반)분야를 망라한 수익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시청자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임금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공영방송 관련 법제도들을 개선하여 새로운 지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 특정 진영의 시각에 매몰되지 않는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바뀌고 시청자가 물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보도 간부들을 구성원이 동의하는 인물로 임명하고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 지역별, 성별, 연령별 시청자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 거대 권력에 대해서는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소수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3. 능력 지향적인 탕평 인사원칙을 세워서 내부 화합을 이루겠습니다.
 - 정권이 바뀌어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 능력 중심의 발탁 인사로 조직에 헌신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겠습니다.

02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실천의지와 경영능력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 현실적인 사업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1.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만들겠습니다.
 - 경영진 보수를 절반으로 줄이되 나머지는 성과에 따르겠습니다.
 - 사업본부를 신설하되, 전체 경영진의 규모는 줄이겠습니다.
 - 부문별 이기주의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2. 뉴미디어 퍼스트 사업구조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지상파 편향적 사업구조를 뉴미디어 중심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합니다.
 - 단순 조직개편을 넘어서 전문 인력 및 예산을 즉각 투입하겠습니다.
3. 콘텐츠 제작능력을 극대화시킬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물적, 자본적 취약성을 극복할 대형 스튜디오 시스템을 조성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먼저 드라마 부문을 분사시켜 그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 경쟁력의 원천인 작가 회사와 배우 매니지먼트사를 설립하겠습니다.
 - 자체 자금의 투입은 물론 외부 파트너들과도 적극 협력할 수 있습니다.
4. 수익 사업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겠습니다.
 - MBC 브랜드와 보유 자산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 여수MBC처럼 엔터테인먼트형 관광-레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후방 콘텐츠 사업을 위해 IP(지식재산권)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5. MBC 특성을 반영한 노사공동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겠습니다.
 - 사실상 협동조합처럼 운영되는 MBC특성상 노조도 경영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노조를 노사공동 경영위원회에 참여토록 해 의견을 내고 책임도 지도록 하겠습니다. 1

홍순관 예비후보 경영계획-2

03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문화방송 발전방안

현재의 지상파 편향적 콘텐츠 사업구조를 '뉴미디어 퍼스트'로 전환시켜서 선순환 방식을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이 전방위에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1. 先뉴미디어 - 後지상파 순서로 콘텐츠 제작-유통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지상파 콘텐츠 재가공 수준으로는 뉴미디어 시장을 잡을 수 없습니다.
뉴미디어 시장에서 먼저 시장성을 검증하고 지상파로 올려야 합니다.
2. 플랫폼별 콘텐츠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겠습니다.
 - 뉴미디어 콘텐츠와 지상파 콘텐츠가 유기적인 선순환구조를 가지려면 플랫폼별 콘텐츠가 차별성을 가짐은 물론 상호 연계성도 가져야 합니다.
3.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뉴미디어용 보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연령대별, 성별, 관심사별로 특화된 뉴미디어용 보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들을 선별해 '뉴스데스크'나 '피디수첩' 등에서 재가공해 편성하겠습니다.
(보도부문 '14F'와 같은 뉴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4. '뉴미디어 퍼스트'로 인사 및 예산의 우선 순위를 바꾸겠습니다.
 - 젊고 유능한 직원들을 뉴미디어에 전진배치하고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 전 직원들을 유튜버 또는 MCN크리에이터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중 우수한 콘텐츠들은 회사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웹드라마 및 웹예능 등 뉴미디어 콘텐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 사내외에 뉴미디어 전용 스튜디오 및 제작 장비들을 확보하겠습니다.

04

지역사 및 자회사와의 전략적 발전 방안

MBC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회사와 지역의 조직을 재정비하겠습니다.

1. 본사-자회사, 자회사-자회사 간의 중복투자, 이해충돌을 조정하겠습니다.
 - 그룹 차원의 가치사슬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적자 또는 적자 가능 성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자회사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상호 간의 사업관계를 재편하겠습니다.
2. 지역사를 보도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공영방송의 기반을 지키고, 부족한 제작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제작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사들을 보도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여 권역별로 통합하겠습니다.
 - 지역별 제작기능은 물론 자회사의 제작 기능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MBC 스튜디오(가칭)'를 설립하여 인력-자금-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3. 그룹 내 공동 신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미래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유보금 및 고정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여수MBC 포함 4개사 리조트 사업처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 통합과 조정에 따른 인력구조 개선은 최대한 우호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불가피하다면 인력구조 개선을 하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